

2018 년 5 월 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의 아버지다. 나의 남은 신자들이란 한때 선과 악의 차이에 관한 진리에 충실했었던 이들 중의 일부를 말한다. 남은 신자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을 선택한 이들이다. 남은 신자들 중에서 진리에 대해 논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확고히 진리에 헌신하며, 진리가 그들을 이끄는 곳이 어디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분열을 초래하는, 진리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쉽게 알아본다. 너희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나의 남은 신자들 중 하나로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들 아래 사는 것을 택하면 택할수록 선과 악의 차이가 너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충실함은 더 큰 충실함으로 이어진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9-24):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 년 5 월 2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이들은 방향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은 훈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요즘 시대에는 모든 일의 전체를 보고 인간 존재의 전반적인 목적을 깨닫는 이가 적다. 모든 영혼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그들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견지에서 볼 때, 테러리즘과 공격성, 속임수와 모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무질서한 사랑 등이 어떻게 나의 뜻에 적합할 수 있겠느냐?”

“요즘 시대에는 명예가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너희 나라(미국)를 결합시켰던 법들이 이제는 너희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모든 좋은 목적과 공정한 목표는 사회 정의라는 미명 하에 누군가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혼란이 존재하기에 가장 신중한 이들까지도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한다.”

“지금은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나의 보호의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의 마음과 삶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2018년 5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불가피하기에 오늘날 세상에 말하고 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성인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요즘 시대에 사탄은 영혼들을 거짓으로 유인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사탄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자는 인류 전체를 더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탄이 사제들을 오류로 이끌기 위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가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제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명의 사제라도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은 사탄에게 있어 매우 큰 승리가 된다. 그러니 사제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아라. 이것은 남은 신자들의 또다른 의무이기도 하다. 이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미래의 신앙의 상태는 너희의 응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2:8-10):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2018년 5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나는 모든 백성의 아버지다.”

“모든 사제는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나 지금 겪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선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며 사탄이 사제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를 공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힘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오늘 지상에 왔다.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해 있는 나의 아들 곁에 가까이 머물러라. 너희의 필요에 관해서 그의 중재에 의지하여라. 어떤 사제도 스스로 선택해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섬기도록 부름 받았다. 이 진리와 화해하여라. 이것이 너희 마음의 평화의 열쇠다. 너희 마음을 천국에, 그리고 다른 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데 집중시켜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10):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2018년 5월 5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축일 - 21주년 기념일

우리의 모후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성자께서 나의 성심을 거룩한 피신처로 임명하셨다. 피신처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영혼들은 내 티 없는 성심으로 와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 또 거룩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 티 없는 성심으로부터 얻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일의 성공은 너희의 신뢰 가득한 내말김에 달려 있다.”

2018년 5월 5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축일 - 21주년 기념일

우리의 모후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내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라는 이 칭호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너희가 전투에 직면할 때 힘을 준다. 사탄은 이 칭호 앞에서 달아난다. 또한 이것은 영혼에게 목적의 명료성과 선과 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준다. 나는 이 칭호 아래 내 성심에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인 내게 헌신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내 성심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 안에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평화의 열쇠가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너희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다. 오늘 내 기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부름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2018년 5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의 빛이다. 나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요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왔다. 만약 너희가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 노력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반대한다면 너희는 나 또한 너희에게 반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미래를 인간적 협상에 의탁하지 마라. 나의 계명들 안에 윤곽이 드러나 있는 나의 뜻을 모든 미래의 계획들의 기초로 삼아라. 너희가 진리와 같은 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원수는 너희 최선의 노력을 너희에게 불리하도록 사용할 것이다. 좌절하지 마라. 낙심은 사탄의 무기다. 천국에는 절망감이란 없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여라. 모든 덕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3):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2018년 5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다. 아무것도 나의 신성한 뜻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는 오직 은총을 통해서만 이 신성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너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또한 나의 뜻이다. 너희가 오류에 직면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들이 너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나의 전능은 너희의 필요에서 드러난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의 개입에 감사하여라. 절대 어떤 어려움이든 나의 애정 어린 보살핌 밖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생각하지 마라. 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 각자에 대한 나의 관심을 너희가 확신하기를 바란다. 나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궁지로 몬다.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다. 나에게 청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23:1-6):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더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2018년 5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아버지다. 아무도 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또는 그것이 언제 인류에게 도래하게 될지 그 시간을 모른다. 오직 나 혼자만 이 사실들을 알고 있다. 나의 계명들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나의 정의(심판)의 성격과 강도를 결정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계명들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너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회의 비도덕적인 성격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너희는 내가 왜 이런 긴급한 탄원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기도는, 그것이 얼마나 짧든 혹은 얼마나 산만한 가운데 바쳐지든, 많은 것을 바꾼다. 좌절하지 마라. 너희 기도는 진리를 드러낸다.”

2018년 5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녁

우리의 모후께서 연한 푸른색 망토를 입고 오셨는데 매우 많은 성체들이 그분의 망토에 안감을 댄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6월 10일 내 아드님과 내가 자비의 시간(오후 3시)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에서 발현할 것임을 모든 이에게 알려라.”

2018년 5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선의 아버지다. 나는 선과 악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하거나 반응한다. 다음 순간 숨을 쉬는 것부터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각각 그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기반을 두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적 도덕과 규범 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내말감이 곧 너희의

승리가 되는 하나의 사례다. 거룩한 사랑에 내맡겨라. 그러면 모든 해결책과 힘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나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2018년 5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아무런 천상적 개입이 없는 세상의 결과를 한 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 세상은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훨씬 전에 이미 나의 진노로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사회에는 나의 계명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거나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사실, 거듭 거듭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고 다시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도록 그들의 생활 방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떤 이들은 나의 노력을 벌이라 여긴다. 그들은 나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다른 이들은 나의 은총에 잘 응답하며 그들의 행실을 고친다. 나는 인간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 너희 오류를 깨닫고 나의 교정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요나 3:1-10):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젓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2018년 5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베푸는 은혜는 항상 완전하며 완벽하다. 또한 그것이 베풀어지는 시간도 시기적절하다. 나의 베푸는 은혜는 언제나 각각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든 절대 너희 혼자 어려움에 맞서고 있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너희를 승리로 이끄는 이는 바로 나다. 또한 너희가 패배했을 때 너희를 지지하는 이도 나다. 나의 은총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가 나의 지시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더 가까이 머무르는

쪽을 택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보내는 이들은 나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교화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너희가 나의 지시를 실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나는 자주 다른 이들을 통해 너희를 지지한다.”

“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뜻은 항상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온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2018 년 5 월 12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다. 모든 창조물은 나를 통해 존재한다. 어떤 문제든 나의 뜻을 벗어나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나는 모든 영혼이 나의 뜻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바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완덕으로 깊이 이끌어갈 것이다. 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도 완덕에 이르지 못한다.”

“나의 뜻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변동 없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모든 범죄와 폭력은 이 사랑의 기초에서 벗어난다. 요즘 시대에 너희는 안전해지기 위해서 무기를 비축해야만 하는데, 이런 안전은 미약하며 두려움에 싸여 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의 정화이며, 이것은 애정어린 안전을 낳는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신성한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너희 마음의 동기를 바꿔라. 그러면 너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4:20-21):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 년 5 월 13 일
파티마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어머니의 날
아침**

우리의 모후께서 세 목동과 함께 파티마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미래의 참사 - 그 당시에는 제 2 차 세계대전 - 을 피하도록 기도와 희생과 단식을 장려하기 위해 100 여년 전 파티마에 왔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너희에게 왔다.”

“사람들은 파티마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교회 당국자들의 승인이나 격려도 없었다. 그 결과, 제 2 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오늘 나는 거의 동일한 분위기 안에서 너희를 방문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큰 재앙에 대해 경고한다. 나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에게 영향을 줄 재앙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심지어 자연의 법칙조차 바꾸게 될 핵분쟁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반드시 이 어머니의 충고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지구의 미래와 너희 자신의 존재가 너희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여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재앙의 위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만 너희는 천국의 승리가 땅에 임하는 것을 재촉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파티마에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의 모성적 염려와 기도는 너희가 악을 누르고 승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 나의 현존을 인식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2018 년 5 월 13 일

**파티마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어머니의 날
오후**

우리의 모후께서 파티마의 성모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특정 미래 사건들에 관해 너희에게 좀 더 말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 너희는 세상에서 서로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기도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개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뀔 것이며 평화에 대한 특정 위협도 완화될 것이다.”

“내 아드님의 정의(심판)의 팔이 너무나 무거워지고 있기에 나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힘을 빌어 그 팔을 지탱하고 있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진노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며 눈을 가린다.”

“계속 내 아드님의 정의(심판)의 반감을 사지 마라.”

2018 년 5 월 14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문제를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가져간다. 어떤 해결책도 나의 뜻의 능력 밖에 있지 않다. 나의 성심은 은총의 저수지이며 나는 거룩한 성모와 나의 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눈다. 우리는 세상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한다. 오직 인간이 나의 뜻을 거부할 때 해결책을 찾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도 은총이다. 나의 뜻과의 협력은 문제 해결의 열쇠다. 영혼이 계속해서 나의 뜻을 벗어난 다른 무언가를 원할 때 그는 항상 혼란 속에 있게 된다. 그는 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삶이 그에게 보내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품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무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방법은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 속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 화내지 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아라. 너희가 갈망하는 변화를 위해 기도하되 그 청원들이 나에게 대한 너희 사랑의 초점이 되게 하지는 마라.”

**2018 년 5 월 1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이자 아버지다.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현 순간을 낭비하지 마라. 두려움이나 걱정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미래에 관한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바꾸며, 선행은 나의 성심에 감동을 준다. 희생은 기도와 선행이 병행될 때 강력한 힘이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좀 더 쉽게 정신을 맑게 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상태가 아니라 항상 질서 정연하게 살아라. 나는 너희가 기도 속에 나에게 다가올 때 너희의 완전한 집중을 원한다. 세속적인 걱정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의 보살핌에 맡겨져야 한다.”

“원수는 모든 기도, 특히 묵주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자는 자신의 궁극적인 패배에 있어 기도가 가진 힘을 보며 또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사탄이 패배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태도의 오류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남은 신자들이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강화되기 전까지 나의 진노가 방지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23-25):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에게서 상속 재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2018 년 5 월 16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정부와 종교계와 가정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혼란의 영에 관해 너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왔다. 너희는 반드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 너희를 이것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들은 모두 너희를 하느님의 계명들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획이다.”

“만약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거짓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사탄의 손쉬운 먹이감이 된다. 사탄이 쟁점을 더 많이 흐리게 할수록 (그 문제들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자는 너희가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속셈으로 문제가 아닌 것들을 제시하는 데 능숙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 스캔들을 보아라. 가정에 관해서는 사탄은 약물 중독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반항이다. 종교계 쪽에 관해서는 권한 남용과 아동성애자 활동 등의 사악한 영향(의 존재)를 인식하여라. 이 모든 문제들은 먼저 인식되고 인간의 의지가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이것들은 모두 내 아버지의 성심을 찢는다. 그분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2018년 5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 성심의 고통의 깊이를 인류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어제 나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권한 남용 때문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는지를 너희에게 말해주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법은 커녕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권한 남용이라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진리의 타협이다. 진리의 실체가 도전을 받을 때 인간은 자유로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나라가 장악되는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이들은 대개 조롱을 당하거나 구식이라고 치부당한다.”

“십계명은 인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땅의 모든 법의 토대가 되어야만 한다. 그분의 계명들을 벗어나는 법은 하느님의 눈에 합법성을 지니지 못한다. 진리를 재정의하면서 하느님께서 너희 행동을 승인하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당신의 명령에 도전하고 그것에 관해 논쟁을 벌이라고 너희에게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는 이들 중 일부는 이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인류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더이상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에 상처를 드리지 않도록 기도한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2:1-4):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018년 5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이번에는 성심에서 불꽃들과 연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지극히 괴로운 성심을 보고 있다. 나는 나의 극심한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해주기 위해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것은 주로,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는 진리의 타협이다. 만약 인간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 진리가 그의 행동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합법화된 낙태와 지도부의 부정직이 존재하며 수많은 이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다.”

“너희의 노력으로 나를 위로해다오. 이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너희 마음이 사랑에,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라. 부정직하거나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이들과 씨름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시간 낭비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너희는 나의 성심을 위로해 주어야만 한다.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4):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2018년 5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하느님 아버지의 괴로운 성심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에 대한 나의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심의 부족 때문에 몹시 괴롭다. 나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준수해야 할 규칙들(계명들)을 세상에 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계명들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나의 계명들을 알지조차 못한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그들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너희의 기쁨이 된다. 오늘날에는 나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매우 적다. 진리의 타협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였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초점이 되었다.”

“오늘 나는 모든 영혼들이 나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둘 것을 다시 한 번 청한다. 너희의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승리를 모두 나에게 내맡겨라. 내가 너희 관심의 초점이 되게 하여라. 나의 괴로운 성심을 위로해 다오.”

2018년 5월 20일

성령 강림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빠 하느님의 괴로운 성심이다. 나는 사랑어린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각 영혼은 악을 누르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수양을 쌓아야만 한다. 세상에는 그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고 애쓰는 수많은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영혼은 반드시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은 너희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이끈다. 성령은 영혼이 거룩한 사랑을 토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룩한 사랑은 나의 모든 계명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영혼은 지혜롭게 선택하게 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영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에 나의 성심은 큰 괴로움 속에 있다. 너희도 알다시피 사탄은 위장의 달인이며 곧잘 우호적인 영처럼 나타난다. 영혼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나의 계명들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악한 영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것이 선이라는 미명 하에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이유이며 또한 나의 성심이 괴로워하는 이유다. 나의 계명들을 따름으로써 나를 따라라. 이것이 나의 괴로운 성심을 위로해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신명 5:1):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일러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들어라! 너희는 그것들을 배우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2018년 5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매 현 순간의 존엄성은 그 순간 안에 소비된 거룩한 사랑의 양에 있다. 각 영혼은 (이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듣는 것은 은총이며, 이 말에 따라 사는 것은 너희의 구원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접하지만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나의 성심을 찢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을 온갖 이유를 찾는다. 그들은 심지어, 시간의 흐름이 믿는 것은 그리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그들을 납득시키도록 내버려둔다. 이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다. 나라 전체가 완고한 경우도 많다.”

“나는 때때로 의로운 이들을 나의 진노의 결과로부터 구해낸다. 오늘날에는 진리에 대한 너무나도 큰 무관심이 존재한다. 나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멸망을 방지했던 니네베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들을 너희에게 전해 준다. 영혼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회개하는 것을 허락하면 그는 세상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각각의 회개는 나의 괴로운 성심을 위로해 준다.”

+ 성경 구절 독서 (요나 3:6-10):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잣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2018년 5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아무도 나에게서 숨을 수 없다. 아무도 불신을 통해 나의 지도력의 보물을 바꿀 수 없다. 나는 모든 영혼의 모든 현 순간들을 설계한다. 영원에는 나의 활동을 통제하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

“지상의 인간들아, 만약 너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에 대해 좀 더 책임을 졌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너희의 의무를 좀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뜻의 실현만을 추구한다.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뜻으로 하여금 신성한 뜻에 따르도록 만드는 대신 나의 뜻을 그들의 지상적인 뜻에 맞추게 하려고 애쓴다.”

“바로 이 점이 피조물을 창조주에게서 떨어뜨려 놓는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청원들을 못 들은 척하지 않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신명 5:6-7):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9:10-11):

주님께서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신처가 되어 주시네. 당신 이름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니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아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2018 년 5 월 23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나는 온 인류에게 말하기 위해 왔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있는 나의 현존을 인정하여라. 나의 빛이 너희를 통해 빛나게 하여라. 너희가 나의 규정들에 따라 살면 내가 매 현 순간 너희 삶을 돌볼 수 있게 된다. 저항은 너희에게 혼란의 뒤엎힌 거미줄만 얻어줄 뿐이다. 이것은 속임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나의 영이 너희 결정에 영향을 주게 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회개하라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마음은 그만큼 변화에 가까워진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가 말을 듣기를 거부하기에 몹시 괴롭다. 나의 진노는 나의 아들의 성심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나의 진노가 넘치면 너희는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시간이 없게 된다. 나는 진리 그 자체이므로, 너희는 이 메시지에 대한 너희 태도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테살 5:8-11):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8 년 5 월 2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낮과 밤의 아버지다. 해를 달래어 뜨게 하고 지게 하는 이도 나다. 나는 모든 날에 나의 인장을 날인한다. 모든 시간의 창조주로서 나는 각 영혼의 십자가와 승리를 정한다. 매 현 순간 나의 베푸는 은혜는 완전하다. 내가 너희 삶에 허락하는 십자가에 저항하지 마라. 이것들은 모두 너희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은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에 의해 상쇄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정의(심판)의 저울이 기울어져 너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재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각 영혼에게, 그들 주변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되기를 촉구한다. 사탄이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너희를 설득시키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은 사탄 자신의 무관심의 모습이며, 이것은 모든 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

“나의 사랑과 나의 베푸는 은혜를 신뢰하여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언제나 선에 협력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코린 5:10):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을 받게 됩니다.

2018년 5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아버지다. 자연의 계절은 비교적 순조롭게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간다. 겨울에는 눈,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나뭇잎 등 이 계절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인간 행동에도 이런 계절이 존재한다. 너희 나라(미국)가 세워졌을 당시 그 계절은 종교적 자유를 기리는 시기였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너희는 논란과 혼란의 계절 속에 살고 있다. 종교적 믿음의 중요성은 버려졌으며 어떤 종교들은 경계선을 넘어 정계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 안에 두 가지 목적(대의, 이상)을 지닌다.”

“나는 모든 이에게 거룩한 사랑의 계절로 돌아오라고 청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너희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계절이 너희를 영원한 기쁨으로 데려갈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신명 6:5):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2018년 5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사업은 신뢰를 가지고 성령의 영감에 의탁하는 내맡김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지다. 이 선교사업은 나와 성자, 그리고 거룩한 성모가 세상의 마음에게 말하는 장소가 되어 왔다. 우리는 인류에게 지침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한다. 삼위 일체는 이곳 성지에서 건재하다. 우리의 노력이 무시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메시지들을 발생시키는 절박함에 주목하여라. 임박한 재앙에 관해 경고를 들은 즉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준비했던 노아를 본받아라. 오늘날 너희가 추구해야 할 안전한 거처란 거룩한 성모의 성심 즉,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면 너희는 구원의 빛 안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두 쌍씩 동물들을 모아 이 거룩한 사랑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구원되도록 너희가 이 ‘방주’를 널리 알리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거룩한 삼위일체께 의지하여라. 우리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창세 7:1):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2018 년 5 월 28 일

미국 현충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세대의 아버지다. 오늘 너희 나라(미국)에서는 명예롭게 전사한 이들을 추모한다. 나는 너희의 (이런)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왔지만 또한 죽은 이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바쳐달라 청하기 위해 왔다. 많은 경우, 죽은 이들이 천국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속죄해야 할 많은 잘못들이 그들의 영혼에 존재한다. 그들은 독선적이었을 수도 있고 과거 누군가를 용서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는 독선적인 태도의 자매인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지녔을 수도 있다.”

“아무리 작은 죄의 흠이라도 영혼에 존재한다면 아무도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연옥을 만든 이유다. 연옥은 영혼의 임종 순간에 그 영혼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얼룩을 씻어주는 나의 자비의 바다다.”

“나는 너희에게 연옥이 어떤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없다. 연옥은 각 영혼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모든 영혼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만나는 나의 아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 주어야만 한다. 정화의 바다 속에 있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영혼은 천국의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영혼이 자신과 나의 아들 사이에 아무런 흠이 없게 될 때 그는 기쁘게 낙원으로 들어오도록 허락 받는다.”

“절대 너희와 친분이 있는 죽은 이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마카 12:43-45):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 달라고 은 이천 δρα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2018 년 5 월 30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오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정령들을 멀리하라고 청한다. 나의 영 곧, 성령에 매달려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면서 내가 너희 각자를 통해 빛나는 것이 허용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만난 사람들 또는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 해도 모든 이를 용서하여라. 이것이 빛의 도구가 되는 방법이다. 원한을 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거룩한 사랑이 너희 마음과 삶을 사로잡게 하여라.”

“너희의 아버지인 나는 겸손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기도를 경청한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3:1-5):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2018 년 5 월 3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나에게 청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양육하는 이다. 매 현 순간 너희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받아들여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너희는 많은 일들에 관해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서 나의 힘이 된다.”

“요즘 시대에 나는 모든 면에서 은밀하고 교활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온 인류를 강화시켜주기 위해 왔다. 그자는 명백하게 사악한 것들은 물론 선하게 보여지는 것들 안에도 존재한다. 각각의 결정은 최종 결과에 따라 분별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좋게 보여졌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분열이나 전쟁 또는 인간적 가치의 퇴폐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 과학기술 등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가져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항상 복음 메시지의 진리를 옹호하여라. 거짓은 어느 것이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4-7, 14-16):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